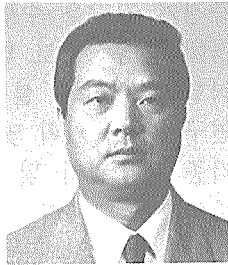


한국전자산업 기술개발의 구심체 역할에 최선을



장 세 탁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소장

병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우리나라 전자산업계가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국가 사회적으로 유난히 큰 사건 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자업계는 다행스럽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성장을 이룩한 한 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생산은 당초 목표 17.5%를 크게 상회하여 약 30.5%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수출은 이 보다 높은 41%라는 놀라운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장률은 일본, 대만, 싱

가폴 등 주변 경쟁국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그만큼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나라 전자산업계의 주변환경은 평탄할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경기하락이 예상되며, WTO체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됨으로서 국가간의 통상마찰과 특허분쟁 등 국제적인 신보호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E(Conformite European)마크의 실시, EU, NAFTA 등 지역별 경제블록화 현상의 심화 등도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의 증가, 폐기물 부담금,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실시 등으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업계, 연구소는 다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이러한 당면한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는 금년 한해를 R&D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대의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요 지향적인 연구, 기업과 밀착된 연구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략적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KETI가 금년부터 국가 선도기술 개발사업(G7)에서 HDTV ASIC개발 등을 주축으로 한 주문형반도체 기술개발과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개발 사업의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정부출연 연구소,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이를 본격 추진하여 KETI를 한국 전자산업기술의 중심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내부적으로 정책·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R&D사업을 도출하고, 이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업계의 실질적인 기술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계 기술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연구활동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첨단산업 지역에 일류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위촉하여 해외지사로서 역할을 하게 하며, 해외 산업·기술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산업분야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 일류 연구소 및 민간 최첨단 연구개발팀

들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제품 개발을 위한 과감한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넷째,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연구소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역할과 비전을 설정하고, 아울러 중장기 연구사업의 기획 및 연구자원의 적정배분, 각종 연구관리 및 경영제도의 개선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연구소만의 일방적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 유명 컨설팅회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한편, 국내 컨설팅 업체와도 공동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연구원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및 연구소원에 대한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과제 및 성과평가 제도를 구축할 것이며, 이 평가시스템의 요소들이 연구소원들의 합리적인 연구·지원활동의 효율적 지침이 되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 연구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반 계획의 꾸준한 추진과 노력은 KETI로 하여금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연구 실용화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